

몽산 어록 조선본의 간행과 유통에 대한 연구

- 『蒙山和尚法語略錄』과 『蒙山和尚六道普說』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Mengshan analects in Joseon Dynasty Focusing on two books of Mengshan, *Mengshan Heshang Sermons Abstract* and *Mengshan Heshang Liudao Pushuo*

김 은 진(Eun Jin Kim)*

송 일 기(II Gie Song)**

< 목 차 >

I. 서론	2. 간행 지역별 분석
II. 몽산 덕이의 어록과 간행 현황	IV.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의 개관 참 여자 분석
1. 몽산 덕이의 어록	1. 화주 및 간선
2.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의 간행 현황	2. 각수
III.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의 간행 시 기별 및 지역별 분석	V. 결론
1. 간행 시기별 분석	

초 록

이 연구는 중국의 송·원대 임제종 양기파의 승려, 몽산 덕이의 대표 어록인 『몽산화상법어약록』과 『몽산화상육도보설』 조선본을 분석한 것이다. 그의 어록과 저술은 고려 말에 전해져 우리나라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어약록은 39종, 육도보설은 24종이 현존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63종을 연구대상으로 간행 시기별, 간행 지역별, 간행 참여자를 분석하였다. 『법어약록』은 대부분 16~17세기에 간행되었다. 1467년 간경도감본이 최초의 판본이며 한문본이 1525년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467년 간경도감에서 세조와 신미에 의해 처음 편찬된 책이다. 육도보설은 모두 15~16세기에 간행되었는데 연해본은 1종만 존재하며 모두 한문본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 몽산 어록의 유통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책은 모두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며 『법어약록』은 국가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몽산의 어록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어록 모두 지리산 지역에서 활발히 간행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대규모 불사에 『법어약록』도 함께 간행되었다. 몽산 어록의 간행에 있어 참여자로 화주는 71명, 각수는 109명이 참여하였다. 화주는 다른 사찰에서의 불서 간행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나 각수는 대부분이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몇몇은 활발한 간행활동을 보이는데 이들은 각 지역의 대표 각수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63종의 『법어약록』과 『육도보설』 판본은 조선 전기 불서 간행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몽산의 어록은 조선 전기 불교계의 개혁과 유행도의 공존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및 유통되었던 것이다.

키워드: 몽산화상법어약록, 몽산화상육도보설, 법어약록, 육도보설, 몽산, 신미, 나옹, 몽산어록, 조선전기불서

ABSTRACT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Mengshan heshang analects. Mengshan heshang lived in Song(齏) and Yuan(僞) Dynasty and he was a Buddhist monk of Linji Chan(禪統驥). His works handed on Buddhist monks of Goryeo i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he influenced Buddhism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n Joseon Dynasty *Mengshan heshang Sermons abstract* was confirmed existence of 39 editions and *Mengshan heshang Liudao Pushuo* was confirmed existence of 24 editions. All 63 editions show that *Sermons abstract* and *Liudao Pushuo* are his representative analects. All editions were printed in early Joseon Dynasty. At that time Mengshan heshang analects was distributed in Joseon Dynasty. Mengshan heshang analects was distributed in all over the nation as well as in Royal Family of Joseon. Also Mengshan heshang analects was published many times in the Mt. Jiri area. The names of almost engravers found on the publications of many temples. Some engravers actively participated in publishing Buddhist scriptures in particular area. His ideas were received i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the early Joseon Dynasty actively and his many works appears like this.

Keywords: *Mengshan heshang Sermons abstract*, *Mengshan heshang Liudao Pushuo*, *Sermons abstract*, *Liudao Pushuo*, Mengshan, Sinmi, Naong

* 한국고전번역원 원전정리실 연구원(kejtony@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19년 2월 21일 •최초심사: 2019년 2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3월 11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61-84,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3.61]

I. 서론

조선 전기는 고려의 출판 문화를 이어 받아 활발한 모습으로 다양한 불교서적 간행 양상을 보이게 된다. 유신들의 탄압으로 불교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불교계에서는 유학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방안으로써 유불도 사상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고 그 결과의 하나로 왕실과 사찰을 중심으로 많은 불서가 간행되었다. 기존에 조선 전기가 송유억불의 시기라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연구에는 불교계의 개혁과 유교, 도교와의 공존을 위해 노력했던 시기로 보고 있다.

몽산 덕이는 송·원대 임제종 양기파의 고승으로 고려 말기에 고려의 승려, 왕실의 인물들과 교류하였으며 그 밖의 두타산의 동안거사 이승휴와도 서신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선승이었지만 그의 선교일치와 유불도 삼교일치 사상은 그의 어록과 저술에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이것은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에 이르러 그의 사상이 전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몽산의 간화선 사상은 당시 고려에 유입되어 전해지던 고려의 간화선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몽산의 선풍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몽산의 어록과 저술이 널리 유통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몽산의 대표 어록으로 조선 전기 활발한 간행을 보인 『蒙山和尚法語略錄』(이하 ‘법어약록’으로 표기)과 『蒙山和尚六道普說』(이하 ‘육도보설’로 표기)의 간행과 유통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판본의 간행 시기와 간행 지역 그리고 간행 참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몽산 덕이의 어록이 조선 전기 어떻게 유통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몽산 덕이에 관한 연구는 불교학(한기두 1985; 최연식, 강호선 2003; 조명제 2005; 정병삼 2007; 허홍식 2008, 인경 2009; 이원숙 2009), 서지학(남권희 1991; 1994; 송일기, 김은진 2011; 2015; 이상백 2012), 국어학(김무봉 1993; 정은영 2005)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계속적으로 주목받아왔다¹⁾. 본 연구자는 몽산의 어록인 『법어약록』과 『육도보설』 간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으나(송일기, 김은진 2011; 2015) 각각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의 저술 및 어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다. 본 연구는 그의 어록과 저술 가운데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이 다수 간행되었던 점을 미루어 몽산의 대표 어록으로 보고 두 어록의 간행본을 대상으로 간행 시기, 간행 지역, 간행 참여자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특징과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1) 몽산 어록의 언해본은 조선 전기의 언해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국어사에서 언해본 분석 및 조선 전기 언해의 모습을 연구하는데 그 대상이 되었다. 불교사에서는 몽산의 생애, 고려와의 교류, 몽산의 사상이 고려와 조선에 미친 영향, 그의 저술과 어록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서지사에서는 남권희의 연구를 시작으로 각 저술과 어록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Ⅱ. 몽산 덕이의 어록과 간행 현황

1. 몽산 덕이의 어록

송원대 임제종의 승려인 몽산 덕이는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 불교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특히 그의 어록은 우리나라에 널리 유통되었으며 현존하는 자료에 의하면 어록과 보설이 두 축을 형성하며 왕실과 지방 불교 사찰에 널리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語錄은 禪僧의 설법, 문답, 언행 등을 기록한 구어문헌을 총칭한다. 특히 불교의 종파 중 선종에서 특히 활발하게 집성되었다. 특정한 교의경전이 없는 종파의 특성 상 조사들의 어록은 선종의 핵심을 전수하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록에 보이는 법어는 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入院, 上堂, 小參, 秉拂, 陞座, 普說, 示衆으로 나누어진다. 몽산의 『법어약록』은 상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禪師나 住持가 설법하기 위해 법당에 올라간다는 의미로 상당 중에서도 길흉화복, 遷化, 고승의 來山 등의 일로 설법하는 것이다. 『육도보설』은 보설로써 널리 정법을 說示한다는 뜻으로 수행자에게 널리 가르침을 설하는 것으로 상당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하는 약식 설법에 해당한다(김종진 2013, 324-325).

원간섭기 불교계는 入元遊學, 入元印可가 유행하였고 고려 후기 지눌과 혜심이 간화선을 강조한 이후 고려 승려들은 강남 임제종의 몽산과도 교류를 하게되었다(강호선 2011, 52-54). 了庵元明, 萬恒, 混丘 등이 그 예로 유학자였던 李承休도 서신을 주고받았다. 또한 懶翁 慧勤, 千熙도 몽산의 휴휴암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몽산의 어록은 고려 말 元으로 求法遊歷한 고려 승려들에 의해 그리고 고려와 元과의 교류 과정에서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몽산의 어록은 『법어약록』, 『육도보설』과 같이 독립된 하나의 책으로 전해지는 것이 있고 『四法語』²⁾의 「蒙山和尚示衆」처럼 책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전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몽산의 어록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되어 널리 알려진 『법어약록』은 「示古原上人」, 「示覺圓上人」, 「示惟正上人」, 「示聰上人」, 「無字十節目」, 「休庵主坐禪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4가지 법어는 몽산이 그의 문도에게 내린 것으로 「示覺圓上人」의 覺圓과 「示聰上人」의 聰은 고려인으로 『법어약록』의 설법 대상은 모두 고려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뒤의 2가지는 모든 수도자를 대상으로 說한 것이다. 「無字十節目」은 어느 때 지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내용

2) 『四法語』의 서명은 1517년 충청도 연산 고운사본 권말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며 4편의 법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각 법어의 서명이 권수제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책의 서명을 '四法語'로 하여 진행하였다.

으로 보아 大慧의 無字話頭十種病을 모델로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이들에게 그 공부를 점검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개 가량의 질문으로 구성된 이 법어는 무자화두에 대한 인식이 대혜의 시대에 비교하여 몽산의 시대에는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인경 2009, 248-249). 「休休庵主坐禪文」은 좌선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정의하고 이것을 종합하여 大機大用으로 전환시켜 화두참구로 다시 회통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휴휴암에서 찾을 수 있는 좌선관의 독자성으로(인경 2009, 237-238) 몽산 덕이의 좌선관을 엿볼 수 있다.

『법어약록』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언해본이 시기가 가장 이른 판본으로 기존에 널리 퍼져 있던 몽산의 어록을 선별하고 약록³⁾의 형태로 편집하여 언해본으로 처음 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경도감에서 조선 제 7대 왕인 世祖와 慧覺尊者 信眉에 의해 언해 및 간행될 때 普濟尊者 나옹 혜근의 어록인 「示覺悟禪人法語」를 포함시켰고 이후 『사법어』, 『初發心自警文』과 합철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간행 및 유통되었다. 신미가 편찬 및 간행에 참여한 점과 보제 존자의 법어가 포함된 것을 통해 나옹의 제자들에 의해 몽산의 저술이 간행되어 유통되었고, 몽산의 사상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약 40여 종의 판본이 확인되는데 모두 조선 전기에 간행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육도보설』은 一切唯心造의 입장에서 十法界를 분별하여, 業力の 결과인 地獄道, 餓鬼道, 傍生道, 修羅道, 人道, 天道의 六道와 聲聞, 緣覺, 菩薩, 佛의 四聖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華嚴經』을 간송하는 법회를 열어 죄를 참회하고 妙道를 깨달아 苦趣에서 해탈하기를 소망하며 法要를 普說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발원하였다. 마지막으로 역대조사들의 화두를 내걸어 화두참구를 언급하며 廻光返照하여 眞性を 보고 頓悟하여 成佛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날 것을 설하였다. 『육도보설』을 설한 시기는 『蒙山和尚普說』 「至元己丑冬節表懺看誦華嚴經普說」에 나오는 『화엄경』 간송을 맹세한 辛巳年(1281년) 10월이 『육도보설』에 나오는 신사년과 동일한 시기로 보고 『육도보설』은 맹세한 1281년 이후인 1282년에서 1289년 사이에 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강호선 2014, 98-102). 『육도보설』 판본은 약 20여 종이 현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판본이 조선 전기에 간행되었다. 1567년 鷲巖寺本이 유일한 언해본으로 한문본이 주로 유통되었다.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은 독립된 책으로서 다량 유통된 것으로 보아 몽산의 대표 어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 전기 승려들의 불교 학습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몽산의 법어로 『四法語』의 「蒙山和尚示衆」은 비록 책의 일부분이지만 몽산 사상의 계승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법어이다. 『四法語』는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東

3) ‘약록(略錄)’이란 간략하게 줄여 적어 놓은 서책으로 유사어로 ‘약지(略誌)’가 있다(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명에 ‘약록(略錄)’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본래의 내용이 있고 그것을 줄인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어약록』은 몽산의 여러 가지 법어 가운데 6가지를 선별했거나 각각의 법어를 짧게 요약해서 정리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 「蒙山和尚示衆, 「古潭和尚法語」로 구성되어 있고 한문본 30종, 언해본 10종으로 상당수 판본이 현존한다. 고려본 1375년 지리산 無爲菴本을 통해 나온 문인들에 의해 『法語』(「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東山崇藏主送子行腳法語, 「蒙山和尚示衆」)가 편찬되었다는 점과 고려 말 몽산 법어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고려본을 시작으로 1400년 지리산 德奇庵本, 1441년 寧海 閏(潤)筆菴本이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윤필암본을 저본으로 1467년 간경도감에서 언해본으로 간행되었고 언해본과 한문본으로 여러 차례 중간되었다(송일기 2015). 윤필암은 해근이 입적 후 그의 문도들이 세운 私的인 기념물의 하나로 해근과 인연이 있던 장소나 그의 문도들이 활동했던 7곳에 세워졌다(강호선 2011, 249-254). 몽산의 법어가 포함된 『四法語』의 윤필암 간행본의 존재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직지심체요절』에 2편의 어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1562년 간행된 『장수멸죄다라니경』 끝 부분에는 「염불화두법, 「염불법어」 2편이 실려 있다. 『四說』은 「易說, 「皇極說, 「中庸說」로 구성된 『三說』에 「無彼此說」을 합하고 四說序를 붙여 만든 책이다. 이 책은 개인 소장자의 유일한 고본으로 몽산의 저술인 『直註道德經』과 합철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三說』의 판심이 ‘語錄 易’, ‘語錄 皇’, ‘語錄 中’으로 되어 있고 본문 첫머리와 『三說』 끝 그리고 「無彼此說」의 첫 머리와 마지막 면에 ‘蒙山和尚語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허홍식 2008, 212-215). 이것을 통해 『四說』 역시 몽산 어록의 하나임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은 독립된 하나의 책으로 간행되어 조선 전기 널리 유통되었고 국어, 역사, 종교, 서지 분야에서 몽산의 다른 어록에 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간행되어 유통된 중수가 『육도보설』은 20여 종, 『법어약록』은 40여 종에 이르며 모두 조선시대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몽산 덕이의 대표 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법어약록』과 『육도보설』 조선본을 대상으로 하여 몽산 어록의 특징과 조선 전기 불서 간행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의 간행 현황

가. 『법어약록』의 간행 현황

『법어약록』은 언해본과 한문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1467년 간경도감본이 가장 시기가 이른 판본으로 여러 건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어사, 불교사, 서지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언해본의 경우 보제존자의 법어를 포함시켜 독립된 책으로 간행되었으며 한문본의 경우 대부분 『초발심자경문』, 『사법어』와 합철되어 간행되었다. 합철되어 전해진 사실은 몽산의 사상이 우리나라 불교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1호)

『법어약록』의 간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법어약록』의 간행 현황

연번	판본	간기
1	1467 刊經都監本	成化3年丁亥歲 朝鮮國刊經都監奉教彫造(諺) ⁴⁾
2	1517 孤雲寺本	正德12年丁丑季夏有日 忠淸道連山土孤雲寺開板(諺)
3	1521 楡岾寺本	正德16年11月日 金剛山楡岾寺開板(諺)
4	1523 石輪庵本	嘉靖2年○ ⁵⁾ 未正月日誌 慶尙道豐基地小伯山石輪庵開板(諺)
5	1525 大光寺本	嘉靖4年乙酉孟夏 全羅道順天地母後山大光寺開板
6	1525 深源寺本	嘉靖4年乙酉夏 黃海道黃州地慈悲山深源寺留板 希世書(諺)
7	1535 氷鉢庵本	嘉靖14年乙未春2月日 平安道寧過地妙香山氷鉢庵開板(諺)
8	1536 神興寺本	嘉靖15年丙申孟夏日 智異山神興寺重刊
9	1540 釋王寺本	嘉靖19年庚子孟秋日 咸鏡道安邊土雪峯山釋王寺開板
10	1543 中臺寺本	嘉靖22年癸卯6月日 全羅道鎭安地聖壽山中臺寺開板(諺)
11	1547 神興寺本	時丁未春日 智異山神興寺開板
12	1563 廣興寺本	嘉靖42年癸亥9月15日 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法語六壇等
13	1563 雙峯寺本	嘉靖42年癸亥夏孟月日 全羅道綾城地雙峯寺開刊
14	1565 蒼岫庵本	嘉靖44年乙丑仲夏日 全羅道扶安地過山蒼岫庵開板
15	1566 普賢寺本	嘉靖45年丙寅九月 妙香山普賢寺開板
16	1566 鷲菴寺本	嘉靖45年日 全羅道淳唱地靈鷲山鷲菴開板(諺)
17	1567 雙溪寺本	隆慶元年丁卯櫻望月 佛名山雙溪寺開板
18	1570 無爲寺本	隆慶4年庚午暮春 全羅道康津地無爲寺開刊
19	1570 徹 窟本	隆慶4年庚午日 慶尙道智異山徹窟開刊
20	1572 龍泉寺本	隆慶6年壬申孟冬 全羅道潭陽地龍泉寺開板
21	1572 表訓寺本	隆慶6年12月 金剛山表訓[寺]開板
22	1573 龍泉寺本	萬曆元年癸酉孟夏8日 全羅道潭陽府地秋月山龍泉寺開刊(諺)
23	1574 月精寺本	萬曆2年甲戌季夏9月 山月精寺開板
24	1577 松廣寺本	萬曆5年丁丑季夏日 順天地曹溪山松廣寺留板(諺)
25	1579 神興寺本	萬曆7年己卯夏 智異山神興寺留鎭
26	1583 德周寺本	萬曆11年癸未季冬日 忠淸道忠州地東面月岳山德周寺開板
27	1584 開心寺本	萬曆12年 忠淸道瑞山地伽椰山開心寺新刊
28	1588 雲門寺本	萬曆16年戊子正月 慶尙道淸道土雲門寺開板
29	1603 能仁菴本	萬曆31年癸卯冬 智異山能仁菴開刊移鎭雙溪寺
30	1605 圓寂寺本	萬曆33年甲辰 慶尙道聞慶地清華山圓寂寺(諺)
31	1605 栗 寺本	萬曆乙巳春 忠淸道維山栗寺刊板
32	1608 松廣寺本	大明萬曆36戊申8月日 順天府松廣寺重刊
33	1631 瑞峯寺本	崇禎4年辛未9月日 京畿瑞峯寺開板
34	1633 釋王寺本	崇禎6年癸酉7月日 咸鏡道安邊土雪峯山釋王寺開刊
35	1634 龍腹寺本	崇禎甲戌3月日 龍腹寺開刊
36	1635 龍藏山本	崇禎8年乙亥4月日 全羅道泰仁地雲住山龍藏山開刊
37	1636 普賢寺本	大明崇禎9年丙子10月日 青松地母子山普賢寺重刊
38	1640 天冠寺本	大明崇禎14年庚辰6月日 天冠山天冠寺重刊
39	1680 普賢寺本	康熙19年庚申5月日 妙香山普賢寺開刊

4) 언해본은 표에서 간기 내용 뒤에 '(諺)'으로 표기하였다.

5) 알 수 없는 글자는 '○'로 표기하였다.

『법어약록』은 총 39종이 현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언해본 11종, 한문본 28종으로 언해본도 상당수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조선본 39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나. 『육도보설』의 간행 현황

『육도보설』은 28종의 판본이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5종만이 현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⁶⁾ 15세기로 추정되는 절첩장본이 시기가 가장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책의 뒷 부분의 ‘德異緣記’의 내용이 주목된다. 1567년 취암사본은 유일한 언해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본이다. 또한 1480년 甲峯菴本과 1568년 靑林寺本은 새롭게 발견된 책으로 몽산의 저술과 어록의 지속적인 발견 가능성을 시사한다.

『육도보설』의 간행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육도보설』의 간행 현황

연번	판본	간기
1	15세기 未詳本	刊記 無
2	1432 [日月寺本]	宣德7(6) ⁷⁾ 年五月日○○○[日月] ⁸⁾ 寺刊
3	1466 未詳本	成化3年丙戌2月日書/成化8年 金守溫跋
4	1480 甲峯菴本	朝鮮國慶尙道南海望雲山甲峯菴/成化16年庚子夏日
5	1489 未詳本	今貧道性行者不勝感限彫板印出以施無窮者 弘治己酉夏4月日
6	1490 慈悲嶺寺本	弘治3年7月日 黃海道瑞眞地慈悲嶺寺開板
7	1497 懸庵本	弘治10年8月日 全羅道鎭安地聳出山懸庵開板
8	1509 大光寺本	正德4年己巳9月日 全羅道順天府母後山大光寺刊板
9	1521 上菴本	正德17年辛巳孟春 江原道楊口地兜率山上菴開板
10	1522 無量寺本	嘉靖元年壬午4月日 刊板于忠清道鴻山縣萬壽山無量寺留
11	1536 神興寺本	嘉靖15年丙申6月日 智異山神興寺開板
12	1537 水月寺本	嘉靖16年10月日 全羅道興德地逍遙山水月寺重刊板
13	1539 廣興寺本	嘉靖18年己亥2月日 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板
14	1541 釋王寺本	嘉靖20年辛丑3月日 咸鏡道安邊土雪峯山釋王寺開板
15	1548 普賢寺本	嘉靖27年戊申 妙香山普賢寺板
16	1555 廣德寺本	嘉靖34年7月日 天安廣德寺開板
17	1565 佛會庵本	嘉靖44年乙丑秋 高達山佛會庵開刊/黃海道兎山地板致於鶴鳳山石頭寺留置
18	1566 安心寺本	嘉靖45年丙寅8月日 全羅道高山地兜率山安心寺留板
19	1567 鷲巖寺本	隆慶元年秋日 全羅道淳昌地鷲巖寺(諺)
20	1568 法住寺本	隆慶3年戊辰7月日 忠清道報恩地俗離山法住寺開板
21	1568 雙溪寺本	隆慶2年12月日 忠清道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板
22	1568 靑林寺本	隆慶2年12月日 忠清道公州地元宗山靑林寺(雙溪寺)開板
23	1570 雙峰寺本	隆慶4年庚午夏孟月 全羅道綾城地雙峰寺開板
24	1575 金剛寺本	萬曆3年乙亥10月日 全羅道海南地金剛寺開板
25	1584 開心寺本	萬曆12年9月日 忠清道瑞山地伽伽山開心寺新開板

6) 『육도보설』은 서지상으로 1552년 五峯寺本, 1566년 安國寺本, 1640년 天冠寺本이 현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판본을 확인할 수 없었다.

7) 글자의 일부가 지워져 알 수 없으나 ‘六’과 ‘七’ 가운데 서지목록 대부분 ‘七’로 보아 1432년 자료로 추정하고 있다.

8) 1432년 판본은 마지막 장의 간행기록의 일부가 지워져 간행지와 간행지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부분은 ○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5종의 『육도보설』 가운데 간행 연도, 간행처를 모두 알 수 없는 15세기 자료를 제외한 조선본 24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Ⅲ.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의 간행 시기별 및 지역별 분석

이 장에서는 몽산의 대표 어록인 『법어약록』과 『육도보설』 조선본 각 39종, 24종, 총 63종을 대상으로 간행 시기와 간행 지역을 분석하였다. 이것을 통해 몽산의 어록이 어떻게 유통되어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간행 시기별 분석

『법어약록』과 『육도보설』 조선본 63종을 간행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의 간행 시기별 분석

시기	어록	『법어약록』	『육도보설』	종수(비율)	
				약록	보설
15세기		1467年 刊經都監本(諺)	1432年 [日月寺本] 1466年 未詳本 1480年 甲峯菴本 1489年 未詳本 1490年 慈悲嶺寺本 1497年 懸庵本	1(2%) ⁹⁾	6(10%)
16세기		1517年 孤雲寺本(諺) 1521年 楡岾寺本(諺) 1523年 石輪庵本(諺) 1525年 大光寺本 1525年 深源寺本(諺) 1535年 水鉢庵本(諺) 1536年 神興寺本 1540年 釋王寺本 1543年 中臺寺本(諺) 1547年 神興寺本 1563年 廣興寺本 1563年 雙峯寺本 1565年 蒼岫庵本 1566年 普賢寺本 1566年 鷺菴寺本(諺) 1567年 雙溪寺本 1570年 無爲寺本 1570年 徹窟本	1509年 大光寺本 1521年 上菴本 1522年 無量寺本 1536年 神興寺本 1537年 水月寺本 1539年 廣興寺本 1541年 釋王寺本 1548年 普賢寺本 1555年 廣德寺本 1565年 佛會庵本 1566年 安心寺本 1567年 鷺巖寺本(諺) 1568年 法住寺本 1568年 雙溪寺本 1568年 靑林寺本 1570年 雙峰寺本 1575年 金剛寺本 1584年 開心寺本	27(43%)	18(29%)

9)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1572年 龍泉寺本 1572年 表訓寺本 1573年 龍泉寺本(諺) 1574年 月精寺本 1577年 松廣寺本(諺) 1579年 神興寺本 1583年 德周寺本 1584年 開心寺本 1588年 雲門寺本			
17세기	1603年 能仁菴本 1605年 圓寂寺本(諺) 1605年 栗寺本 1608年 松廣寺本 1631年 瑞峯寺本 1633年 釋王寺本 1634年 龍腹寺本 1635年 龍藏山本 1636年 普賢寺本 1640年 天冠寺本 1680年 普賢寺本		11(17%)	0(0%)
합계	39종	24종	39종 (61%)	24종 (38%)

위의 표를 보면 15~17세기, 조선 전기에 『법어약록』과 『육도보설』 두 어록 모두 집중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어약록』은 15세기에 언해본 1종만 확인되며 한문본은 16세기 1525년 大光寺本이 최초이다. 반면 『육도보설』은 15세기 판본이 6종이나 확인되며 모두 한문본이고 언해본은 16세기, 1567년 鷲巖寺本이 최초이자 마지막 판본이다. 『법어약록』은 17세기 말까지 간행되었던 반면 『육도보설』은 1584년 개심사본을 마지막으로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15세기에 『법어약록』이 1종으로 2%, 『육도보설』은 6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16세기에는 각각 27종과 11종으로 전체의 43%, 17%를 차지하고 있다. 17세기에는 『법어약록』이 11종으로 전체의 1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육도보설』은 15~16세기에 『법어약록』은 16~17세기에 활발하게 간행되어 유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어약록』은 위 표를 통해서 왕실에서 언해본으로 처음 편찬된 책일 가능성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15세기에 『육도보설』과 같이 한문본으로 유통되어 여러 판본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한문본이 1525년에 처음 보이는 것은 언해본이 최초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467년 이전의 한문본 『법어약록』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언해본이 최초의 판본으로 『법어약록』은 1467년 편찬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당시 나옹 혜근에 의해 몽산의 법어가 전래 및 정리되고 그의 제자인 信眉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¹⁰⁾ 간경도

10) 15세기에 국가왕실은 다양한 불교전적을 간행에 있어 선종영가집·목우자수심결·몽산화상법어약록·육조법보단경 등 고려 중후기 선불교 전통을 대변하는 선 전적들도 간행되었는데, 특히 선종영가집은 3회나 간행되었고 永嘉 玄覺의 다른 저술이거나 그 주석서인 영가진각대사증도가·영가진각선사증도가주해·영가

감의 언해불전 편찬 및 간행은 일반 백성이 아닌 당시의 승려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불교의 기초 교리, 지식을 보급하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김기중 2012, 115). 『법어약록』은 불교입문서로 선정되어 『사법어』, 『초발심자경문』과 합철되어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에 활발한 간행을 보인 『법어약록』은 왕실에서 간행하여 유통시킨 만큼 중요한 책으로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을 것이다.

『육도보설』은 15세기 판본이 6종이나 확인되는데 당시 몽산의 어록과 저술이 비중 있게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언해본은 1567년 취암사본이 유일본이며 임진왜란 이후의 판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17세기에는 비록 두 법어의 목적과 대상은 다르지만 『법어약록』이 몽산의 대표 어록으로 유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몽산의 어록은 『법어약록』 1680년 普賢寺本을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불교계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나옹 혜근이 중시했고 그의 문도들이 간행했던 『선종영가집』의 경우 17세기 이후에는 거의 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태고법통설이 확립되면서 나옹이 주류에서 배제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강호선 2011, 234-238). 17세기 전반의 불교계 재편 과정에서 정통성 인식인 임제태고법통, 수행체계인 삼문수학, 강학체계인 이력 등이 성립하였으므로, 임제태고법통, 삼문수학, 그리고 이력의 불교계 수용과 확산은 그 자체로 조선 불교계가 청허계와 부휴계 문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이자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손성필, 전효진 2018, 276). 17세기 중반 이후 당시 불교계에서 편양계를 필두로 사명 및 부휴계 모두가 태고법통설로 통일되었던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태고 보우가 임제종의 石屋 淸珙(1272~1352)에게서 법을 이은 적통임을 강조하면서 고려에 직접 법통을 전수한 바 없는 몽산은 제외시켰던 것이다. 당시 사상계에 불교 있던 소중화 의식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채상식 2010, 318-319).

16세기에 간행된 여러 禪 전적을 통해 볼 때 16세기에는 고려 중기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시기의 여러 선 사상 전통이 공존하였으나, 여말선초의 주류 불교계의 사상적 경향을 대변하는 『육도보설』, 『법어약록』 등의 몽산 덕이 관련 저술, 나옹이 중시한 『선종영가집』 등이 가장 다량으로 지속 간행되고 있었다. 이는 몽산과 나옹으로 대변되는 여말선초 주류 불교계의 사상적 전통이 16세기에도 여전히 불교계의 주류 사상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손성필 2013, 157). 몽산의 대표 어록인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은 승려들의 수행 공부를 위한 도서로 조선 전기 활발하게 간행되어 유통되었다. 당시 불교계의 강한 개혁

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계승 등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선종영가집은 고려말의 懶翁 惠勤이 중시하였던 선 전적으로서, 그 문도들이 이를 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손제자인 己和는 『선종영가집설의』를 찬술하기도 하였다. 혜근이 고려 말의 왕사였을 뿐 아니라 그의 제자인 無學 自超는 조선 태조대에 王師에 제수됨에 따라 혜근의 문도들이 여말선초의 중앙 불교계를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왕실판과 관판본 선종영가집이 다수 간행된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그만큼 중앙 불교계에서 나옹의 사상적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손성필 2013, 131-132; 박해진 2014). 이것을 통해 조선 전기 불서 간행에 있어서 나옹의 문도들이 다수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의지와 조선 전기 유학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에 속에서 몽산의 선교일치, 삼교일치 사상은 그의 어록과 저술이 쉽게 수용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2. 간행 지역별 분석

『법어약록』과 『육도보설』 조선본 63종을 대상으로 간행 지역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4〉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의 간행 지역별 분석

어록 지역	『법어약록』	『육도보설』	종수(비율)	
			약록	보설
朝鮮 王室	刊經都監 1467年本(諺)		1(2%)	0(0%)
江原道	金剛山 楡岾寺 1521年本(諺) 金剛山 表訓寺 1572年本	楊口 上菴 1521年本	2(3%)	1(2%)
京畿道	瑞峯寺 1631年本 龍腹寺 1634年本		2(3%)	0(0%)
慶尙道	豊基 石輪庵 1523年本(諺) 安東 廣興寺 1563年本 淸道 雲門寺 1588年本 聞慶 圓寂寺 1605年本(諺) 靑松 普賢寺 1636年本 智異山 ¹¹⁾ 徹屈 1570年本 智異山 神興寺 1536年本 1547年本 1579年本 智異山 能仁菴 1603年本	南海 甲峯菴 1480年本 安東 廣興寺 1539年本 智異山 神興寺 1536年本	10(16%)	3(5%)
全羅道	順天 大光寺 1525年本(諺) 鎭安 中臺寺 1543年本(諺) 綾城 雙峯寺 1563年本 扶安 蒼屈菴 1565年本 淳唱 鶯菴 1566年本(諺) 康津 無爲寺 1570年本 潭陽 龍泉寺 1572年本 1573年本(諺) 順天 松廣寺 1577年本(諺) 1608年本 泰仁 龍藏山 1635年本 天冠山 天冠寺 1640年本	鎭安 懸庵 1497年本 順天 大光寺 1509年本 興德 水月寺 1537年本 高山 安心寺 1566年本 淳唱 鶯菴 1567年本(諺) 綾城 雙峰寺 1570年本 海南 金剛寺 1575年本	12(19%)	7(11%)
忠淸道 (5,5)	連山 孤雲寺 1517年本(諺) 佛名山 雙溪寺 1567年本 忠州 德周寺 1583年本 瑞山 開心寺 1584年本 維山 栗寺 1605年本	鴻山縣 無量寺 1522年本 天安 廣德寺 1555年本 報恩 法住寺 1568年本 恩津 雙溪寺 1568年本 公州 靑林寺 1568年本 瑞山 開心寺 1584年本	5(8%)	6(10%)

11) 조선 전기 지리산 지역의 활발한 불서 간행은 중요한 특징으로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어 왔다. 판본의 간기 내용에 해당 道の 표기 없이 지리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平安道 (3,1)	寧過 氷鉢庵 1535年本(諺) 妙香山 普賢寺 1566年本 1680年本	妙香山 普賢寺 1548年本	3(5%)	1(2%)
咸鏡道 (2,1)	安邊 釋王寺 1540年本 1633年本	安邊 釋王寺 1541年本	2(3%)	1(2%)
黃海道 (2,2)	黃州 深源寺 1525年本(諺) 九月山 月精寺 1574年本	瑞眞 慈悲嶺寺 1490年本 鶴鳳山 石頭寺 1565年本	2(3%)	2(3%)
未詳 (0,3)		[日月寺] 1432年本 未詳 1466年本 未詳 1489年本	0(0%)	3(5%)
합계	39종	24종	39종 (62%)	24종 (40%)

간행 지역의 분석 결과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은 왕실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간행된 양상을 보이며 왕실본을 통해 몽산의 사상이 조선 전기 국가에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간행 현황 분포는 강원도 3종(5%), 경기도 2종(3%), 경상도 13종(21%), 전라도 19종(30%), 충청도 11종(18%), 평안도 4종(7%), 함경도 3종(5%), 황해도 4종(6%)으로 확인되었고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서 간행이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어약록』은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집중 간행된 경향이 보이나 『육도보설』은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활발한 간행을 보이지만 그 밖의 지역은 비슷한 비율로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고 작은 규모의 지방 사찰에서도 유행했던 책으로 생각된다.

가장 많은 불서를 간행한 지역은 전라도로 1566년 淳唱 鷲菴에서는 『법어약록』 언해본이 간행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육도보설』 언해본이 간행되었다. 『법어약록』 언해본의 영향으로 『육도보설』 언해본의 필요성을 느껴 사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간행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담양 용천사에서는 1572년 『법어약록』 한문본을 간행하고 그 다음 해에 언해본을 간행하였다. 용천사는 壬亂前 약 20년 동안에 25종을 간행하는 비교적 활발한 출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남권희 2018, 104) 이 당시 『법어약록』도 간행되었다. 또한 1635년 태인 용장사에서 간행된 『법어약록』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용장사는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태인 운주산에 소재해 있었다. 특이한 연혁이 없는 이 사찰은 특정 시기인 1635년에 불서를 11(+5)종이나 개관한 것으로 보인다. 임란 후 산일된 불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서산 문도에 의해 강원교재류와 의례불서가 개관되었으며 불사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종의 불서를 일시에 개관한 사례는 드문 현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송일기 2017).

몽산 어록의 간행 지역 분석에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지리산에서의 활발한 간행이다. 조선시대 지리산 지역 사찰의 활발한 간행 활동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몽산의 어록 역시 지리산 지역에서 10%에 해당되는 6건이 간행되었으며 특히 신흥사에서 4건이 간행되었다. 신흥사는 지리산 하동 지역에 있는 사찰로 16세기에는 간행본이 28종이나 개관되었다. 16세기 간행본을 가지고 있는 철굴, 칠불사, 남대암 모두 신흥사 인근의 사

찰이거나 암자였음을 감안한다면 신흥사를 중심 사찰로 하는 간행 불사가 이 시기에 매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37년 신흥사에서 간행된 『도서』, 『절요』, 『서장』은 16세기에 활발히 간행된 각 판본 계열의 선구적 판본이었으며 1579년 신흥사에서 간행된 『도서』, 『절요』는 17세기에 압도적으로 간행된 각 판본 계열의 선구적 판본이었다. 지리산 신흥사는 사집 불서를 최초로 간행한 사찰일 뿐 아니라 16, 17세기의 사집 불서 간행과 유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다(손성필, 전효진 2018, 250).

또한 능인암에서도 1603년 『법어약록』이 간행되었는데 임란 직후인 1603년에서 1611년까지의 시기에는 능인암에서 대대적인 불서 간행이 있었다. 임란 이후 승려들의 교육적 욕구가 증가하였던 반면 실제 강학에 필요한 교재가 극히 부족하였던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간행된 불서 역시 강원에서 승려들의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서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1603년 능인암본의 간기를 보면 ‘萬曆31年癸卯冬智異山能仁菴開判移鎮雙溪寺’로 작성되어 있는데, 능인암은 임란 직후 소실된 쌍계사의 불서 간행을 전담하였던 암자로 보인다(송일기, 박민희 2010, 382-386).

함경도 지역의 대표 사찰인 석왕사에서는 『법어약록』 한문본이 약 100년을 차이에 두고 2회, 1540년과 1633년에 간행되었으며 『육도보설』 한문본이 1541년에 간행되었다. 석왕사에서는 조선시대 꾸준히 출판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禪종류의 불서와 개인의 문집이 많이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임기영 2013, 343).

몽산 어록의 간행은 위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며 특히 전라도 지역, 지리산 지역에서의 간행이 특징적이다. 또한 각 지방의 대표 사찰, 불서 간행이 활발했던 사찰에서 기본적으로 간행되는 필수 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세기에 간행된 『법어약록』은 임란 이후 소실된 불서를 대대적으로 개판했던 상황에서 함께 간행되었다. 이것을 통해 몽산의 어록은 조선 전기와 임란 직후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며 필수 서적으로 그 중요성이 컸음을 알 수 있다.

IV.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의 개판 참여자 분석

이 장에서는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의 개판에 참여한 인물에 대해 간행 시기 및 지역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개판 참여자는 조연자의 대표로 화주 및 간선, 기능자의 대표로 각수를 분석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판본을 제외하고 화주 및 간선은 50종, 각수는 51종의 판본에서 나타나는데 이 판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 화주 및 간선

몽산의 어록 『법어약록』과 『육도보설』 50종을 대상으로 개관 활동에 화주 및 간선으로 참여한 인물은 71명이 확인된다. 화주와 간선은 사찰의 간행불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덕을 으뜸으로 꼽는다. 따라서 현존본을 살펴보면 화주와 간선의 기입은 거의 누락 없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다(김상호 1992, 72-75). 50종의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의 개관 참여자로서 화주 및 간선의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 『법어약록』과 『육도보설』 개관의 화주 및 간선

간행 판본			화주 및 간선
15세기	경상도	(普)1480 甲峯菴	淸敏, 了淳
	전라도	(普)1497 懸庵	河一, 玉心道熙 ¹²⁾
	황해도	(普)1490 慈悲巖寺	罔道, 雪心, 性淸, 傳談
	미상	(普) ¹³⁾ 1432 [日月寺]	信峰
		(普)1466 未詳	禪師義玄
16세기	강원도	(普)1521 上菴	罔潤, 信謹, 仅會
		(法)1521 楡岾寺	戒淳, 性均, 罔允
		(法)1572 表訓寺	智行, 敬禪
	경상도	(法)1523 石輪庵	信章
		(普)1539 廣興寺	愼初 ¹⁴⁾
		(法)1563 廣興寺	惠元, 三印
		(法)1588 雲門寺	弘印
		(法)1536 神興寺	崇一
		(普)1536 神興寺	仅○
		(法)1547 神興寺	崇一
	전라도	(法)1579 神興寺	性悟
		(普)1509 大光寺	釋休, 祖一, 學淳, 德琳, 李厚灵駕
		(普)1537 水月寺	釋雄
		(法)1543 中臺寺	雪峯
		(法)1563 雙峯寺	性宗
		(法)1565 蒼岾庵	彦琪
		(法)1566 鷲菴寺	先揖
		(普)1566 安心寺	智軒比丘
		(普)1567 鷲巖寺	玄揖, 天文
(法)1570 無爲寺		淡俊	
(普)1570 雙峰寺		信瑀	
충청도	(法)1573 龍泉寺	慧澄	
	(普)1575 金剛寺	玉淨	
	(法)1517 孤雲寺	覺峻	
		(普)1522 無量寺	雪峻

12) ‘玉心道熙’는 ‘玉心’과 ‘道熙’ 2명으로 파악하였다.

13) ‘(普)’는 『육도보설』, ‘(法)’은 『법어약록』을 의미한다.

14) <표 5>에서 화주 및 간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수의 역할도 수행했던 인물의 경우 진하게 표시하였다.

17세기		(普)1555 廣德寺	仅根
		(法)1567 雙溪寺	印正
		(普)1568 雙溪寺	灵云比丘
		(法)1583 德周寺	戒默
		(普)1584 開心寺	金荷蓮
		(法)1584 開心寺	金荷蓮
	평안도	(法)1535 氷鉢庵	學玄, 雪仁, 信戒
		(普)1548 普賢寺	學齡
		(法)1566 普賢寺	玄默
	함경도	(法)1540 釋王寺	學玲
		(普)1541 釋王寺	智熙, 妙明
	황해도	(法)1525 深源寺	圓空
		(普)1565 石頭寺	法惠
		(法)1574 月精寺	智仁
	경상도	(法)1636 普賢寺	釋玉
		(法)1603 能仁菴	行淨, 湖鏡
		(法)1635 龍藏寺	戒學
		(法)1605 栗寺	申億從
		(法)1680 普賢寺	智雲, 元學
함경도	(法)1633 釋王寺	靈民, 法能	
50종		71명	

50종의 판본에 나타나는 화주 및 간선은 총 71명으로 사찰간의 교류는 보이지 않으나 崇一은 신흥사본 2종에서 공통으로 보이며 金荷蓮은 1584년 개심사본 『범어약록』, 『육도보설』 두 어록의 간행에 모두 참여하였다. 화주의 역할은 보통 1명이 맡아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많게는 5명이 참여한 경우도 있다.

1603년 능인암에서 『범어약록』 개관에 화주 및 간선으로 참여한 行淨, 湖鏡은 같은 해에 능인암에서 『誠初心學人文』, 『高峯和尚禪要』, 『禪源諸詮集都序』, 1604년에는 『看話決疑論』, 『高峯和尚禪要』, 『大慧普覺禪師書』, 『妙法蓮華經』,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를 간행하는데 화주로 참여하였다. 행정과 호경은 능인암에서 주로 활동했던 승려로 능인암의 간행 불사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愼初, 惠元, 性悟, 釋雄, 學玲, 智熙 6명은 불서 간행에 각수로 참여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사찰간의 이동이 다른 참여자에 비해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화주 및 간선의 역할을 수행한 참여자는 대부분 다른 불서 간행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찰에만 머물며 몽산 어록 간행을 주관한 화주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각수

몽산의 어록 『범어약록』과 『육도보설』 51종을 대상으로 개관 활동에 각수로 참여한 인물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 『법어약록』과 『육도보설』 개관 각수

관각본		각수
15세기	전라도	(普)1497 懸庵 義敬
	황해도	(普)1490 慈悲嶺寺 戒淡, 性敏, 李英實
	미상	(普) ¹⁵⁾ 1432 未詳 性鈞
(普)1466 未詳 大禪師海文		
16세기	강원도	(普)1521 上菴 罔祖 ¹⁶⁾ , 覺連, 惠云
		(法)1521 楡岾寺 罔祖, 覺連
		(法)1572 表訓寺 智元, 信雲, 敬敏
	경상도	(普)1539 廣興寺 熙云
		(法)1563 廣興寺 思湜
		(法)1588 雲門寺 義連, 宗元
		(法)1536 神興寺 戒心, 戒珠, 惠嘗, 信崇
		(普)1536 神興寺 戒珠, 信崇
		(法)1547 神興寺 信崇, 信儀, 道雲
	전라도	(法)1579 神興寺 粹然, 戒祖, 坦衍, 戒惟, 圓裕, 勝牛, 敬元, 自正
		(法)1525 大光寺 法浩, 道信, 戒心
		(普)1537 水月寺 釋雄
		(法)1543 中臺寺 儀罔, 天印, 仁惠
		(法)1563 雙峯寺 玄敏, 法雲
		(法)1565 蒼岫庵 彦琪
		(法)1566 鷲菴寺 正云
		(普)1566 安心寺 信行, 徹庵
		(普)1567 鷲巖寺 一訓, 印花
		(法)1570 無爲寺 性明, 法輪, 玉晶
		(普)1570 雙峰寺 性進
		(法)1573 龍泉寺 坦熙, 行青, 坦珠, 允悟, 雪岑
		(普)1575 金剛寺 天暉, 智彦, 玉倫
		충청도
	(普)1522 無量寺 信眉, 孤雲	
	(普)1555 廣德寺 志盈	
	(法)1567 雙溪寺 惠淳, 妙庵	
	(普)1568 雙溪寺 惠導比丘, 正仁比丘, 智軒比丘	
(法)1583 德周寺 聖賢		
(普)1584 開心寺 廣惠		
(法)1584 開心寺 廣惠		
평안도	(法)1535 冰鉢庵 印岑	
	(普)1548 普賢寺 日雲	
	(法)1566 普賢寺 債湜	
함경도	(法)1540 釋王寺 學玲	
	(普)1541 釋王寺 義淸	
황해도	(法)1525 深源寺 義安, 義浩	
	(普)1565 石頭寺 學靈	
	(法)1574 月精寺 崇雨, 天鑑, 佛眼	

15) ‘(普)’는 『육도보설』, ‘(法)’은 『법어약록』을 의미한다.

16) <표 6>에서 몽산 어록 간행에 있어 각수의 역할로서 사찰간의 교류를 확인 할 수 있는 참여자를 진하게 표시하였다.

17세기	경기도	(法)1634 龍腹寺	祖雲
	경상도	(法)1636 普賢寺	釋玉
		(法)1603 能仁菴	應俊, 惠寬, 勝熙, 絕玉, 眞義, 玄鑿, 坦昱
	전라도	(法)1608 松廣寺	自敬, 智海, 性玉, 心印
		(法)1635 龍藏寺	印和, 道慈, 林之先, 性玄, 成云, 法海, 金光立, 宝元, 玄淨
		(法)1640 天冠寺	楚玉
	충청도	(法)1605 栗寺	智崇
	평안도	(法)1680 普賢寺	韓善熙, 朴永吉
함경도	(法)1633 釋王寺	崇祐, 妙安, 忠益, 學衍, 玉蓮	
51종			109명

모두 51종의 판본에 나타나는 각수는 총 109명으로 개관에 있어 1~3명이 각수로 참여했고 많게는 9명이 참여한 경우도 있다. 사찰간의 교류는 3명이 나타난다. 罔祖와 覺連은 1521년 양구 上菴에서 『법어약록』 간행에 각수로 참여했고 같은 해에 금강산 楡岾寺에서 『육도보설』을 간행했다. 이와 같이 경조와 각연은 주로 강원도 지역에서 각수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戒心은 1525년 大光寺와 1536년 神興寺에서 『법어약록』을 간행하는데 각수로 참여하였다. 계심은 아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경상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많은 불서 간행에 각수로 참여하였다.

다음 표는 몽산 어록을 간행한 각수들의 다른 불서 간행을 정리한 것으로 각수로서 가장 많은 불서를 간행한 8명의 간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참여자의 활동 시기 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7> 몽산 어록 개관 각수의 불서 각판 활동

시기	참여자	불서 판각 사실	종수	활동 지역
16세기	戒心	1525 순천 大光寺 『蒙山和尚法語略錄』	8종	경상도(지리산), 전라도
		1525 순천 大光寺 『禪林寶訓』		
		1527 진주 神興寺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528 순천 龍門寺 『高峯和尚禪要』		
		1529 순천 松廣寺 『人天眼目』		
		1531 진주 鐵窟 『禪門寶藏錄』		
		1532 광주 兜率寺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536 지리산 神興寺 『蒙山和尚法語略錄』		
	愼初	1531 영천 公山本寺 『妙法蓮華經』	8종	경상도
		1532 영천 公山本寺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535 영천 公山本寺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536 함양 靈覺寺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537 문경 石峯菴 『緇門警訓』		
		1539 안동 廣興寺 『蒙山和尚六道普說』(간선)		
		1542 안동 廣興寺 『月印釋譜』		
1543 영천 公山本寺 『大慧普覺禪師書』				
思湜	1545 영변 普賢寺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7종	경상도 평안도	
	1563 안동 廣興寺 『蒙山和尚法語略錄』			
	1563 안동 廣興寺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17세기		1568 안동 廣興寺 『仔蔓刪補文』		
		1568 풍기 叱方寺 『月印釋譜』		
		1572 풍기 毘盧寺 『禮念彌陀道場懺法』		
		1572 풍기 毘盧寺 『月印釋譜』		
	智崇	1569 동복 安心寺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8중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충청도
		1572 진주 臣興寺 『釋迦如來行蹟頌』		
		1576 청주 菩薩寺 『綾城具氏姓譜』		
		1578 금천 三藐寺 『妙法蓮華經』		
		1604 문경 圓寂寺 『禪家龜鑑』		
		1605 공주 栗寺 『蒙山和尚法語略錄』		
		1606 공주 栗寺 『禪源諸詮集都序』		
	1618 공주 栗寺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玄鑿	1603 지리산 能仁庵 『蒙山和尚法語略錄』	7중	경상도(지리산)
		1603 지리산 能仁庵 『禪源諸詮集都序』		
		1604 지리산 能仁庵 『高峯和尚禪要』		
		1604 지리산 能仁庵 『大慧普覺禪師書』		
		1604 지리산 能仁庵 『妙法蓮華經』		
1609 문경 圓寂寺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印和	1603 지리산 能仁庵 『禪源諸詮集都序』	9중	경상도(지리산), 전라도	
	1604 지리산 能仁庵 『妙法蓮華經』			
	1604 지리산 能仁庵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607 순천 松廣寺 『妙法蓮華經』			
	1608 순천 松廣寺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608 순천 松廣寺 『禪源諸詮集都序』			
	1611 지리산 能仁庵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1635 태인 龍藏寺 『蒙山和尚法語略錄』			
1635 태인 龍藏寺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崇祐	1630 성천 靈泉寺 『高峯和尚禪要』	8중	경기도, 평안도, 함경도	
	1630 성천 靈泉寺 『大慧普覺禪師書』			
	1632 안변 釋王寺 『妙法蓮華經』			
	1632 삭녕 龍腹寺 『妙法蓮華經』			
	1632 삭녕 龍腹寺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633 안변 釋王寺 『蒙山和尚法語略錄』			
	1633 안변 釋王寺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634 안변 釋王寺 『金剛般若波羅密經』				
忠益	1632 안변 釋王寺 『妙法蓮華經』	7중	경기도, 함경도	
	1632 삭녕 龍腹寺 『妙法蓮華經』			
	1632 삭녕 龍腹寺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633 안변 釋王寺 『蒙山和尚法語略錄』			
	1633 안변 釋王寺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1634 안변 釋王寺 『金剛般若波羅密經』			
1636 양주 回龍寺 『結手眞言集』				

몽산 어록 간행에 각수로 참여했던 참여자들은 화주로 참여했던 참여자들과는 다르게 대부분 다른 불서 간행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위 표는 가장 많은 불서를 간행한 8명과 그들이 간행했던 불서를 정리한 것이다. 16세기에는 계심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리산 지역에서, 신초와

思湜은 경상도, 智崇은 각수로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 17세기에는 玄鑿이 경상도 지리산 능인암에서, 印和는 경상도 지리산과 전라도 지역, 崇祐는 평안도, 함경도, 경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忠益은 경기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을 확인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16세기에 계심은 1525년 순천 대광사, 1536년 지리산 신흥사에서 『법어약록』을 간행했는데 그가 각수로 활동했던 시기는 16세기 전기로 확인되며 순천, 진주, 광주, 지리산 지역에서 『선림보훈』, 『고봉화상선요』, 『천지명양수록재의찬요』, 능엄경 등을 간행했다. 또한 15세기 활동 각수로 신초는 1539년 안동 광흥사에서 『육도보설』 간행에 간선으로 참여했었고 여러 불서에서 각수로 활동하였다. 경상도 지역의 영천, 함양, 문경 등의 지역에서 각수로 활동하며 『묘법연화경』,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등을 간행하였다. 사식은 경상도 안동과 풍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1568년 안동 廣興寺에서 『仔夔刪補文』과 1572년 풍기 毘盧寺에서 『禮念彌陀道場懺法』, 『月印釋譜』 등을 간행하였다. 지승은 1569년 동북 安心寺에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간행을 시작으로 1618년 공주 栗寺에서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을 간행하며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에 현감은 지리산 능인암에서 6종의 불서 간행에 참여했다. 현감은 능인암의 전문 각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법어약록』이 외에 『선원제전집도서』, 『대혜보각선사서』, 『고봉화상선요』 등을 간행하였다. 인화는 지리산 능인암과 순천 송광사, 태인 용장사에서 각수로 활동했으며 『선원제전집도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원각경, 법화경 등을 간행하였다. 승우와 충익은 주로 북쪽 지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승우는 성천, 안변, 삭녕에서 활동하였으며 『대혜보각선사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등을 간행하였다. 충익은 안변, 삭녕, 양주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금강반야바라밀경』, 『결수진언집』 등을 간행하였다.

몽산의 어록 『법어약록』과 『육도보설』의 화주 및 간선의 역할은 50종의 판본에서 71명이 확인되는데 화주의 역할은 보통 1명이 수행하였으며 이들은 다른 불서 간행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각수의 역할은 51종에서 109명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다른 사찰로 이동하며 몽산 어록 외의 다른 불서도 활발히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에는 계심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리산 지역에서 신초와 사식은 경상도, 17세기에는 현감이 경상도 지리산 능인암에서, 인화는 경상도 지리산과 전라도 지역, 승우는 평안도, 함경도, 경기도 그리고 충익은 경기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을 대표 각수라고 하기에는 비록 종수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들의 간행 활동 양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송원대 승려인 몽산 덕이는 다른 중국 승려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고려 말 고려의 승려와 왕족과의 활발한 교류로 그의 사상은 조선 전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으

며 이것은 조선 전기 불서 간행 양상에 있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몽산의 대표 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본 『법어약록』 39종, 『육도보설』 24종을 대상으로 간행 시기, 간행 지역, 간행 참여자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63종을 분석한 결과 15세기에는 『법어약록』 언해본 1종, 『육도보설』 한문본 6종이 간행되었으며 16세기에는 『법어약록』 27종, 『육도보설』 18종이 그리고 17세기에는 『법어약록』 11종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5세기에 『법어약록』은 언해본이 유일한데 16세기 초에도 언해본이 계속 간행되다 1525년 대광사본을 시작으로 한문본이 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법어약록』이 1467년 처음 세조와 신미에 의해 편찬되어 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육도보설』은 15세기 6종의 한문본을 통해 몽산의 어록이 널리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세기에는 임란 직후 인 만큼 부족한 불서를 보충하기 위해 불교 학습서로서 국가에서 간행한 바 있는 『법어약록』이 활발히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이후의 간행본은 보이지 않으며 이것은 불교계 법통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간행 지역적 분석 결과 몽산의 어록은 전국적으로 널리 간행되었으며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대규모 불사가 진행된 곳은 지리산의 신흥사와 능인암 그리고 용장사 등이며 능인암과 용장사는 임란 이후 시급하게 필요한 불서를 다수 간행하였는데 몽산의 어록이 이에 포함된 것을 통해 기본적인 불서였음을 알 수 있다. 몽산의 어록은 왕실의 지원을 받는 전국의 유명 사찰뿐 만 아니라 지방의 사찰에서도 다수 간행되었는데, 이는 몽산 어록의 전국적인 유통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몽산 어록의 간행에 있어 약 50종의 판본에서 화주 및 간선은 71명, 각수는 109명이 참여하였다. 보통 한 사찰에서 화주 및 간선의 역할은 1명, 각수는 1~3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대규모 불사의 경우 다수가 참여한 모습도 보인다. 몽산의 어록을 간행하는데 화주 및 간선으로 참여했던 승려들은 사찰 내부의 승려로 이들은 다른 사찰에서의 불서 간행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각수의 경우는 이와 달리 여러 지역에서 다른 불서 간행에 대부분 참여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16세기에 계심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리산 지역, 신초와 사식은 경상도 지역, 17세기에는 현감이 경상도 지리산 능인암에서, 인화는 지리산과 전라도 지역, 송우는 평안도, 함경도, 경기도 그리고 충익은 경기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넷째, 몽산 어록은 조선 전기 왕실과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15, 16세기에는 『육도보설』, 16, 17세기에는 『법어약록』이 전라도, 충청도, 지리산 지역에서 집중 간행되었다. 승려들의 교육을 위한 학습서로서 중요성이 컸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규모 불사의 필수 간행 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어약록』은 초기에 언해본이 집중 간행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책의 경우 언해본이 먼저 간행된 이후 한문본이 출현한 특이한 사례이다. 불서 간행에 참여했던 각수들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불서 간행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향후에도 불서 간행에 참여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호선. 2011. 『高麗末 懶翁慧勤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 강호선. 2014. 조선전기 『蒙山和尚六道普說』 간행의 배경과 의미. 『동국사학』, 56: 98-102.
- 곽철환. 2003. 『시공불교사전』. 서울: 시공사.
- 김기중. 2012. 15세기 불전언해의 시대적 맥락과 그 성격 : 간경도감본 언해불전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58: 115.
- 김무봉. 1993.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의 국어사적(國語史的) 고찰(考察). 『동악어문논집』, 28: 105-138.
- 김상호. 1990.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김상호. 1992. 寺刹板의 鍊板과 諸 役員에 관한 考察. 『사회문화연구』, 11.
- 김은진, 송일기. 2015. 『蒙山和尚法語略錄』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4.
- 김종진. 2013. 동아시아 불교계 어록 연구의 제언 : 비교문학적 연구를 위한 자료 제시. 『국제어문』, 58: 324-325.
- 남권희. 1991. 『蒙山和尚六道普說』 諺解本の 書誌的 考察. 『어문논총』, 25: 63-74.
- 남권희. 2018. 潭陽 龍泉寺와 刊行 佛書의 研究. 『서지학연구』, 75: 104.
- 박해진. 2014. 『훈민정음의 길 혜각존자 신미 평전』. 서울: 나늬.
- 손성필. 2013.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손성필, 전효진. 2018. 16·17세기 '사집(四集)' 불서의 판본 계통과 불교계 재편. 『한국사상사학』, 58.
- 송일기. 2015. 四法語의 편찬과 유통. 『서지학연구』, 63.
- 송일기. 2017. 泰仁 龍藏寺 開板佛事 研究. 『서지학연구』, 71.
- 송일기, 김은진. 2011. 蒙山 德異의 『蒙山和尚六道普說』 板本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 송일기, 박민희. 2010. 지리산 소재 사찰의 조선시대 개판불서 연구. 『서지학연구』, 46: 382-386.
- 이상백. 2012. 『佛祖三經』의 성립과 저본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53: 155-178.
- 이원숙. 2009. 休休庵坐禪文에 관한 연구. 『한국선학』, 23: 193-222.
- 인경. 2009.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간화선사상 연구』.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 임기영. 2013. 安邊 釋王寺 간행 판본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54: 343.
- 정병삼. 2007. 몽산 저술의 간행과 16세기 조선불교. 『불교학연구』, 18: 119-147.
- 정은영. 2005. 『몽산화상육도보설』입결 연구. 『국어사연구』, 5: 95-119.

- 조명제. 2005. 고려말 元代 看話禪 수용과 그 사상적 영향 - 蒙山, 高峰을 중심으로 -. 『보조사상』, 23: 137-178.
- 채상식. 2010. 1608년 松廣寺 重刊 『勸修定慧結社文』·『誠初心學人文』 연구. 『서지학연구』, 47: 318-319.
- 최연식, 강호선. 2003. 『蒙山和尚普說』에 나타난 蒙山の 행적과 高麗後期 佛教界와의 관계. 『보조사상』, 19: 163-206.
- 한기두. 1985. 休休庵坐禪文 研究. 한국문화와 원불교사상. 615.
- 허흥식. 2008.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서울: 창비.
- 『종교학대사전』. 1998. 서울: 한국사전연구소.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ang, Hosun. 2011. *A Study on Son Monk Naong-Hyegeun in the Late Goryeo Dynasty*. Ph. D. dis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Kang, Hosun. 2014.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publication of Mengshan heshang liudao pushuo 蒙山和尚六道普說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DONG GOOK SA HAK*, 56: 98-102.
- Kim, Ki Jong. 2012. "The Historical Context and Nature of Korean-Version Buddhist Texts in the 15th Century Focusing on Korean-version Buddhist texts published by Gangyeongdogam."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58: 115.
- Kim, Mu Bong. 1993. "A Historical Study of Korean on the Mongsan-bobu-Onhae." *Journal of Dong-ak Language and Literature*, 28: 105-138.
- Kim, Sang-Ho. 1990. *(A)study on the engravers of temple woodblock publications in Choson Dynasty*. Ph. D. diss.,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Kim, Eun-Jin, Song, Il-Gie. 2015. "A Study on Bibliography of Mengshan Heshang Sermons Abstract."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64.
- Kim Jong-jin. 2013. "A Proposal for Research of Buddhistic Analects in Korea, China, and Japan -Presenting Data for Comparative Literary Research."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58: 324-325.
- Nam, Kwon-Hee. 1991. "A bibliographical study of 『Liudao Pushuo of Mengshan』." *Eomunlonchong(語文論叢)*, 25: 63-74.

- Nam, Kwon-Hee. 2018. "An Analysis on the Publication of Buddhism Literature in Yongcheonsa, Damyang."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75: 104.
- Sohn, Seongphil. 2013. *The Chosŏn Court Policies on Buddhism and the Buddhist Activities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Ph. D. diss., Dongguk University. Korea.
- Sohn, Seongphil, Jeon Hyo Jin. 2018. "Reorganization of the Buddhism Seen through the System of 'Sajip' Printed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he Study of Korean History of Thought*, 58.
- Song, Il-Gie. 2015. "Compilation and Distribution of Four Buddhist Sermon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63.
- Song, Il-Gie. 2017. "A Study on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at Temple YongJang in Tae-I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71.
- Song, Il-Gie, Kim, Eun-Jin. 2011. "A Study on the Publication of Liudao Pushuo, One of Mengshan De-yi's Work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 Song, Il-Gie, Park, Minhee. 2010. "A Study on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in the Temples of Jirisan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 382-386.
- Lee, Sang-Baek. 2012.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Literary Sources and Genesis on Buljosamgyeong(佛祖三經)."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53: 155-178.
- Lee, Won-Sook. 2009. "A study on "The Xiuxiu Yan Discourse on Za-Zen"." *Journal of Korean Seon Studies*, 23: 193-222.
- Inkyung. 2009. *Study on Mengshan(蒙山) De-yi(德異) and the Thought of Ganhwa-seon(看話禪) in the End of Goryeo(高麗)*. Seoul: Meditation Counseling Research Institute.
- Lim, Kee-Young. 2013. "A Bibliographical Study of Buddhist Literature Published at Seokwang Temple(釋王寺) in Hamkyung Province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54.
- Jung, Byung-Sam. 2007. "Publication of the Works of Mengshan and the Buddhism of Joseon in 16th century." *Journal of Buddhist Studies*, 18: 119-147.
- Jeong, Eun-yeong. 2005. "A Comparative Study on Ipgyeoch in Different Versions of

- Mongsan hwasang yukdo boseol.” *Korean Historical Linguistics*, 5.
- Cho MyengJe. 2005. “Acceptance of KouanZen of the Yuan dynasty at the end of Goryeo and its ideological influence – laying stress on Mongsan(蒙山) and Gobong(高峰).” *Journal of Bojo Jinul's Thought*, 23: 137–178.
- Chae, Sang-Sik. 2010. “A Study of Gwonsujeonghyegyelsamun(「勸修定慧結社文」) and Gyechosimhaginmun(「誠初心學人文」), Reprint Editions by Songgwang Temple(松廣寺) in 1608.”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47: 318–319.
- Cheo, Yeon-Shik, Kang, Ho-Sun. 2003. “A Study on Mengshan De-yi's Activity and His Relation with the Korean Buddhism in Late 13th Century Shown in Mengshan heshang pushuo.” *Journal of Bojo Jinul's Thought*, 19: 163–206.
- Han, Ki doo. 1985. “A study on The Xiuxiu Yan Discourse on Za-Zen.” *Korea Culture and Wonbuddhist Thought*(韓國文化와 圓佛教思想), 615.
- Heo, Heung Sik. 2008. *The Light of Xiuxiu Yan Left in Goryeo*(高麗). Paju: Changbi.